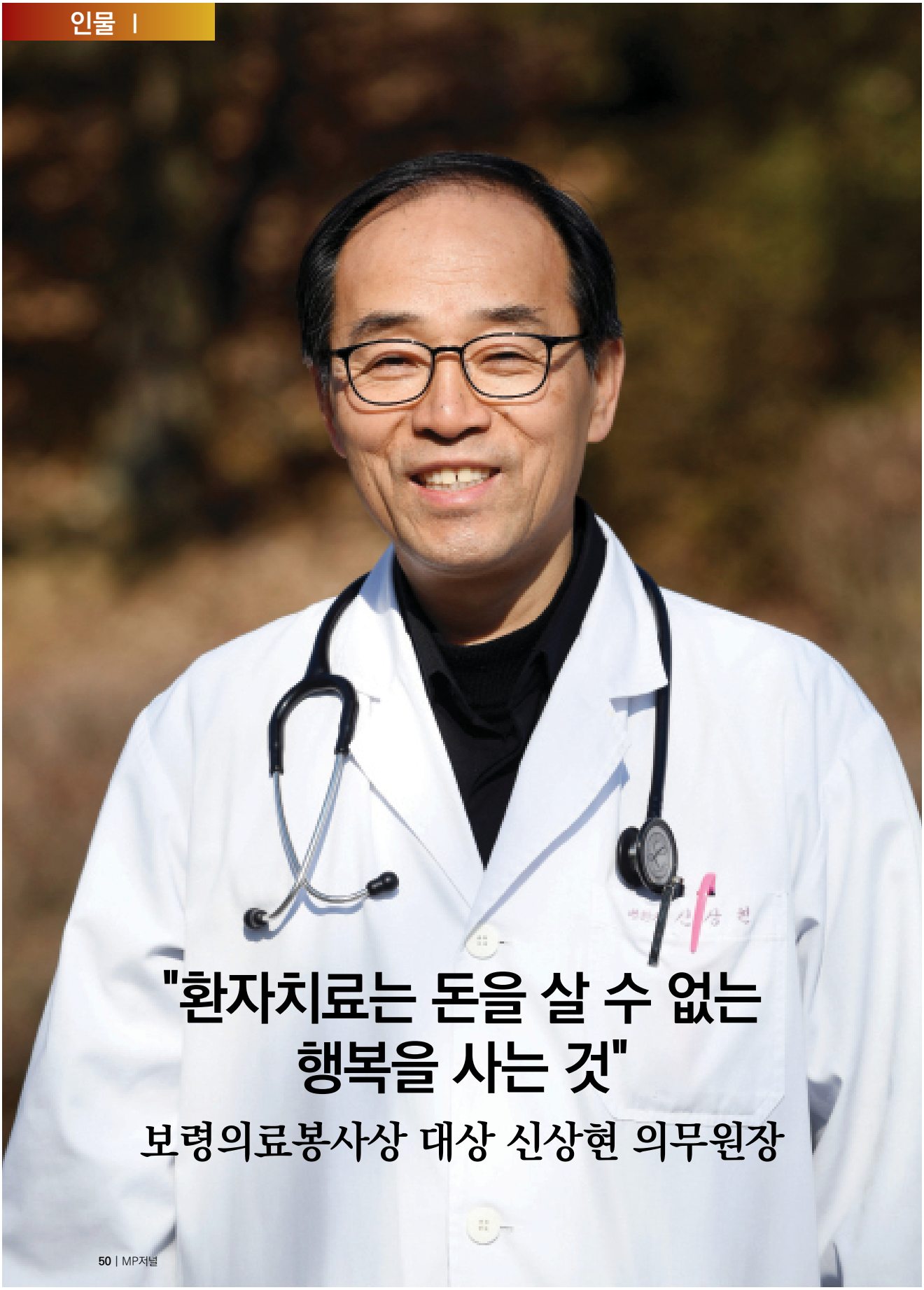

"환자치료는 돈을 살 수 없는 행복을 사는 것"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신상현 의무원장

시인을 꿈꿨던 소년이 의사가 됐다.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이 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상현 의무원장은 전문의가 되자마자 꽃동네로 들어왔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의 마지막 천국, 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30년간 봉사에만 전념해 온 그에게 의협신문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33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이 주어졌다.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은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충북 음성꽃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의 치유의 곳이다. 의료혜택은 물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음성꽃동네는 노숙인, 무연고자, 국립병원등 종합병원의 장기입원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자, 그리고 천주교 성당 교우들 중 버림받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상현 의무원장은 이들에게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세상과 화해해 기쁨을 노래하며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세가지라고 한다. 거부와 배반, 버림받는 것.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자신을 또 버릴 것'이라며 마음을 안 열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빈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듯 사랑의 결핍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 힘들지 않느냐고 묻곤 한다. 고통은 있지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없었다고 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에 후회해본 적이 없다. 폐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고자 꿈을 접고 의사가 됐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이제 의사가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사는 행복해 질수 있는 직업으로 의술을 사랑으로 베풀 때 느끼는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잊는,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신승현 의무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리고 싶단다.

신상현 의무원장은 강남성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음성꽃동네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꽃동네 형제회 수도회에 입회해 종신 서원 수사가 됐고, 현재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부총장,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 의무원장, 세계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 아시아 담당이사, 주교회 의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사, 꽃동네현도학원 이사,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필리핀 등 해외 꽃동네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